

교육발전특구 조성 속도…‘교육도시 해남’ 기대감

군교육재단 등 5개 기관 협력…인재양성 등 교육 혁신

명현관 군수 “2028년까지 국비 지원…대학·기업과 협력”

해남군 교육발전특구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교육 혁신 사업을 비롯해 지역산업을 연계한 특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2023년 민·관·학이 참여하는 재단법인 해남군교육재단(이사장 명현관)을 발족하고,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이끌어 내고 특구사업 운영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2년차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교육발전특구 조성은 해남군과 교육재단, 교육지원청, 해남고·해남공고 등 5개기관이 ‘해남으로 돌아오는 그린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비전으로 상호 협력하며 학생·청년·가족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올해 국가SI컴퓨팅센터

와 화원산단 해상풍력 전용항만 조성 등이 확정되면서 관련 분야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인재 양성과 정주여건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특구 컨트롤타워로 AI·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 강점의 ‘대학연계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지역대학과 전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학생과 군민을 대상으로 AI 등 관련 분야 교육을 폭넓게 지원하게 된다. 아카데미에서는 해남공고 학생 자격증 취득도 지원해 기능형 인재 육성의 중심지로 기능할 계획이다.

올해는 청년 정착을 위한 ‘그린인재 정착형 취업패키지’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미취업 청년 50명에게 자격증 취득비·면접비·교통비 등으로 정주지원비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일부 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비도 지원했다. 초·중·고교생 2000여명에게는 찾아가는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기존 사업도 확대돼 입학충자금 지급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상을 확대해 지원했고, 화상 외국인 교육도 군민들의 호응속에 참여자가 500명까지 늘었다.

해남교육지원청을 통한 유아부터 고교까지 전 생애 교육 혁신 사업도 진행됐다. 유치원·어린이집 간 유보 거점형 돌봄

센터와 작은유치원 공동교육과정을 신설해 토요돌봄·물놀이캠프·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농어촌 유아교육 격차를 해소했고, 그린 에코 교실, 영어캠프·창의융합 프로그램 등 해남형 글로벌 공동교육과정으로 17개교 7학급을 매칭해 학교 간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했다.

자율학기제는 중학생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진학박람회·진로연수는 500명, 700명까지 참여를 늘려 학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지역아동센터·늘봄학교 예산 확대와 외국인 가정생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 한국어 프로그램 신설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도 했다.

지역 고교인 해남고는 글로벌 그린인재

프로젝트로 신재생에너지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주제로 해외연수와 내고장 탐구 활동을 추진했으며, 해남공고는 신재생에너지 특성하고 교육과정 개편과 대학연계 활동으로 맞춤형 인재양성에 돌입했다. 해남공고는 향후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가고 있다.

해남군교육재단 이사장인 명현관 해남 군수는 “교육발전특구로 5개 기관이 해남 교육발전이라는 한 방향을 바라보는 동반자가 됐다”며 “항후 대학·기업과도 협력을 강화해 ‘교육도시 해남’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완도사랑상품권 혜택 확대

월 70만원·연간 700만원

완도군은 올해 완도사랑상품권 할인과 구매 금액을 확대했다.

군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군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19년부터 완도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오고 있다.

완도사랑상품권은 지류(선 할인), 모바일(캐시백 적립)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 중이다.

지난 1일부터는 지류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10%, 모바일 상품권은 할인을 10%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 금액은 사용 후 캐시백으로 적립된다.

아울러 개인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늘렸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불편을 고려해 지류 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농협, 수협, 신협 등 판매 대행점을 통해 대면으로 구매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이 매출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꼼꼼하게 운영하겠다”며 “지역 축제와 연계한 적립 이벤트 등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사랑의 한 끼’로 추위 녹여요 강진읍에서 운영중인 중화식당 ‘짜장꽃’이 강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매월 문화소외지역 어르신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사랑의 한 끼’는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통해 위로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선희 짜장꽃 대표는 매달 짜장면과 짬뽕 등 요리를 손수 준비해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진군

신안, 국토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한다

청년·신혼부부 위한 명품 주거단지 건립

신안군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거 복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은 전남도의 역점 사업인 ‘전남형 민원주택’과 연계된 프로젝트로, 총사업비 366억원을 투입해 청년 60호, 신혼부부 30호 등 모두 90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이는 지역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을 막고 외부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평가된다.

사업 대상지는 압해읍으로, 이미 부지 확보가 완료된 상태다. 압해읍은 신안군청 소재지로 행정·상업 중심지 역할을 하며,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등 여가 시설과 주요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다. 특히 ‘슬세권(슬리퍼 신고 이용 가

능한 생활권)’으로 불릴 만큼 생활 편의성이 높아 젊은 세대의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입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소득 창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삶과 일터가 조화될 ‘살고 싶은 명품 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압해읍 일대는 천사대교로 육지와 연결된 접근성과 섬 풍경으로 젊은 층에게 매력적이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무안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만8398명’

노인등록통계 결과 공표…전체인구 19.8% 차지

무안군의 지난해 노인 인구가 1만8398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노인 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5년 무안군 노인등록통계’를 신규 작성해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통계는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복지, 건강 등 5대 분야 총 59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무안군 각 실·과, 국가데이터처,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행정자료와 기존 통계자

료를 연계·분석해 개발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된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공표 결과 2024년 말 기준 무안군 노인 인구는 1만8398명으로 전체 인구 9만2913명 가운데 19.8%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20%)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안군이 고령사회 지역임을 나타내며, 노인 관련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목포, 섬주민 여객선 승선절차 간소화

목포시는 올해부터 관내 섬주민의 여객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섬주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섬주민이 여객선을 이용할 때 발권과 승선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 도입으로 사전에 사진 정보를 등록한 경우 섬 이름과 본인 이름 확인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발권부터 승선까지의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섬주민

은 유달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다만 예외 상황에 대비해 여객선 탑승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시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선사와 유관기관, 마을 통장 등을 통해 섬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섬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